Dubai유, 2006년 45-60달러 형성

KEERI, 세계경제 성장성에 공급차질이 변수 … 기준 시나리오 53달러

2006년 국제유가는 Dubai유 기준 배럴당 45-60달러 상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2006년 국제유가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경제 성장, 중동정세, 허리케인과 같은 공급인프라 피해사고에 따라 변동하고, 또 고질적 수급불안을 근저로 하는 심리적 변수로 작용해 선물시장의 투기자본 유입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성희 연구원이 전경련의 2006년 경제전망에 발표한 2006년 국제석유시장 시나리오 구성에 따르면, 고유가 시나리오에서는 두바이(Dubai)유 기준 연평균 배럴당 60달러,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53달러, 저유가 시나리오에서는 45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 시나리오는 세계경제 성장률 4% 이상으로 석유 순소비 200만B/D 이상 증가, 공급부문 차질로 인해 1달 이상 제약요인 발생, 선물시장의 투기자본 유입 급증이 발생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기준안 시나리오는 연평균 53달러로 세계경제 성장률 3% 유지, 석유 순소비 150만B/D 수준 유지, 공급부문 극단적 피해 최소화를 가정했다.

또 저유가 시나리오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침체되고 석유 순소비 증가가 100만B/D 미만이며, 공급부문 피해발생이 없고 심리적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예측됐다.

<화학저널 2005/11/28>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